

[목회실에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And the Tree Was Happy

김영훈 목사

어떤 분은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나무에게서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실버스타인 (Shel Silverstein)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The Giving Tree)” 줄거리입니다. 사과 나무는 자기 친구였던 소년에게 자신의 열매를 팔아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게 했고, 어른이 되어 집이 필요할 땐 자신의 가지를 주어 집을 짓게 했고, 먼 곳을 떠날 땐, 자기 즐거움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게 했으며, 오랜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되어 돌아온 친구에게 쉼 곳을 주고자 그루터기만 남은 그 자리를 내 주었습니다. 친구에게 아낌없이 준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Some said they learned life lesson from a tree, but we can observe God's unsparing love from a tree. This is a summary of 'The Giving Tree,' a book written by Shel Silverstein. An apple tree helped a boy, his friend, collecting money by selling its fruits; it gave its branch to build a house when he became an adult and needed a house; it gave its trunk to make a boat when he left home; and it gave up its stem to give a resting place for the boy who returned home after a long period of time. The tree which gave its friend unsparingly was happy.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자기 아들까지 내어 준 사랑 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절에서 8:32 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자신을 내준 것보다 더 아픈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것보다도 비할 수 없는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그 내용보다는 마지막 말,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And the tree was happy)” 라는 부분에서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서 입니다.

The Apostle Paul calls God's love as the love He didn't spare His own Son. Romans 8:32 read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In a way it must have been a more painful love than giving up on Himself. His love was an unsparing love that couldn't be compared with anything. I was moved more from its final sentence, "And the tree was happy," than the storyline of the book. It is because our Lord might have done that.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은 많이 힘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낌없는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이 구원과 영생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행복하실 것입니다 (슌 3:17). 사도행전 20:35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 말이, "나는 행복했습니다"이면 좋겠습니다.

The unsparing love must have been so hard and painful. God must have felt so painful when He heard the cry of pain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However, the unsparing sacrifice led us to salvation and eternal life. So, God must have felt so great seeing His people walking toward the path of salvation.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us in the future (Zephaniah 3:17). Acts 20:35 reads,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We must keep that in mind. I hope we too want to follow the path of love and live in the image of the Lord. So, I hope our last word of our life would be "I was happy."